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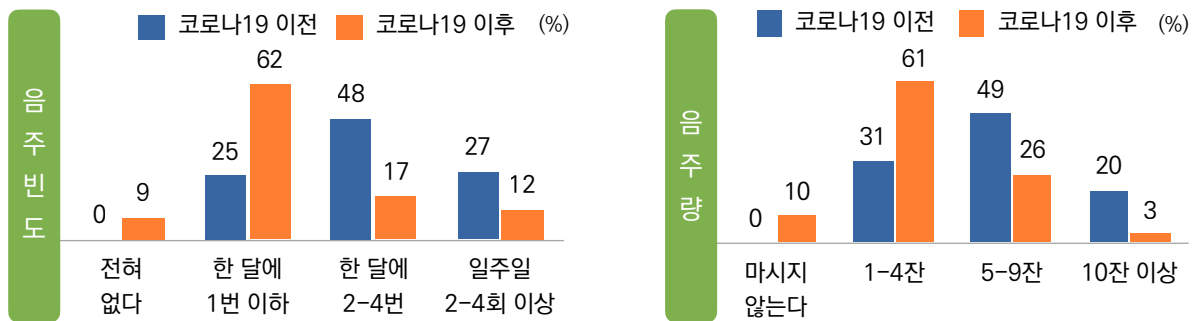
2. 대학생 음주 현황



코로나19 이후 대학생 음주, 현저하게 줄어!

- 대학생 음주와 관련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최근 조사결과를 살펴보면,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에 음주빈도에 변화가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의 경우 코로나19 이전 대비 이후에 음주빈도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.
- 음주량 역시 10잔 이상 마시는 Heavy User의 경우 코로나19 이전 20%, 이후 3%로 크게 준 것으로 조사돼,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대학생의 음주 빈도와 양이 전반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.

[그림] 코로나19 전후 대학생 음주 빈도와 양 변화(음주빈도/양 변화있다는 학생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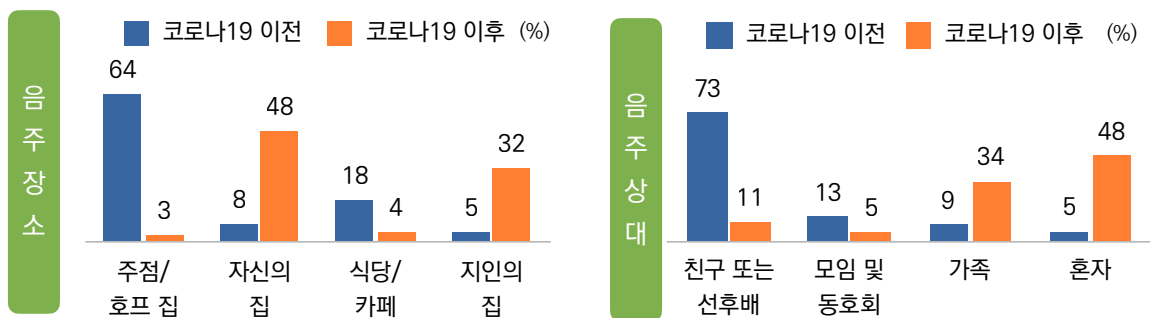


*자료 출처 : 한국건강증진개발원, '코로나19 이후 대학생 음주현황조사 결과 발표', 2021.11.9. (전국 대학생 및 휴학생, 남녀 2,900명, 온라인, 2021.8.16.-10.1)

● 코로나19 이후, '혼술' 급증!

- 대학생의 음주 장소 역시 변화가 큰데, 코로나19 이전에는 '주점/호프집'이 64%로 가장 높았는데, 코로나19 이후에는 3%로 급감한 반면, '자신의 집'에서 먹는 일명 '혼술'이 코로나19 이전 8%에서 코로나19 이후 48%로 크게 증가했다.
- 음주 상대 역시 코로나 이전에는 '친구 또는 선후배'가 73%로 가장 높았지만, 코로나19 이후에는 '혼자'가 48%로 1위를 차지했다.
- 폭넓은 관계가 필요한 대학생 시기에 코로나19 이후 사람들과의 관계가 매우 축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.

[그림] 코로나19 전후 음주 장소와 상대 변화(변화있다는 학생, 상위 4위)



*자료 출처 : 한국건강증진개발원, '코로나19 이후 대학생 음주현황조사 결과 발표', 2021.11.9. (전국 대학생 및 휴학생, 남녀 2,900명, 온라인, 2021.8.16.-10.1)